

2020 국악창작곡 개발

'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' 1차 예선 심사결과

□ 심사 개요

- 심 사 명: 2020 국악창작곡개발-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
- 일시/장소: 2020년 5월 15일(금), 09:30~15:30 / 국악방송 12층 공개홀
- 심사위원: 권송희(권송희판소리LAB대표), 민소윤('노올량' 대표), 서영도(베이스스트, '서영도트리오', '신박서클' 멤버), 양승환(작곡가, 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예술감독), 황민왕('블랙 스트링' 멤버, 국악방송 <노래가 좋다> 진행자) ※가나다순
- 심사항목 : 대중성(30%), 독창성과 창의성(30%), 국악적 요소의 창조적 계승(20%), 음악의 완성도(20%)

□ 심사 결과

- 심사결과 : 총 19팀 선정 (노래곡 14팀, 연주곡 5팀)

접수번호	팀명	참가곡명	장르구분
1	구각노리	광끼	노래곡
7	락드림	놀량가(Play Good)	노래곡
9	소리양상블 ∞공	아량가	노래곡
11	모꼬지	이판사판	노래곡
16	Ryhmic	파도-East wave	연주곡
19	sEODo BAND	심청이 거동 봐라	노래곡
20	FUN소리꾼	눈치코치	노래곡
22	음악제작소 WeMu	어-허긋짜	노래곡
38	당도리	독여	노래곡
39	심플	상여가 실은 청춘	노래곡
42	FROM310	새벽안개	연주곡
43	천군만마	알라알라성	노래곡
45	groove&	Run, Ran, Run	연주곡
46	속속곳	Plankton	노래곡
54	예대스타일	비나리	노래곡
56	팀 두유노	두유노	노래곡
57	고공	대해일적	연주곡
58	온새미로	청청 靑靑	연주곡
60	BoB	쾌지나 칭칭(ching ching) 나네	노래곡

○ 주요 심사평

이름	심사평
양승환 (심사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년에 이어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낍니다. 다행히 이번 해에도 많은 지원자들 덕분에 더욱 다양해진 장르의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- 몇몇 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대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합니다. -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회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'국악창작곡 개발'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'예술성'과 '대중성', 이 단어들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'동시대성', 치밀하게 구성된 '형식미', '세련미' 등의 단어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에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제들을 더해 심사기준으로 삼아 어렵게 선정했습니다.
권송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올해는 현재 대중적인 문화 흐름을 따라 트로트, 힙합 사운드,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와 접목한 다양한 장르의 팀이 많이 나왔습니다. - 21C한국음악이라는 기준을 칼로 자르듯 명확히 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정서 색이 짙고 완성도와 가능성이 높은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- 창의성과 독창성, 실험정신이 드러난 팀들이 있어 반가웠습니다. - 하지만 옛 문학 사설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노래와 악기 편곡이 조화롭지 않은 팀이 더러 있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.
민소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중성을 강조한 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. 다만 대중성에 음악의 완성도를 겸비한 팀은 적어 아쉬웠습니다. -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밸런스를 생각한 곡들에 우수한 점수를 주었습니다. - 노래곡의 경우 가사의 완성도가 미흡했습니다. - 재기발랄한 젊은 연령층에 맞는 아이템들이 돋보였습니다.
서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예선에서 멋진 작품만을 기다리기보다 단계를 거치면서 멋진 작품이 될 팀들을 위주로 선정하려 했습니다. 멘토링을 거치면서 발전 가능한 팀이 많이 보였습니다. - 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곡들은 소재(원곡)가 좋아서 향후 발전 가능성(편곡, 사운드 등)이 있어 보였습니다. - 하지만 영상 심사여서 표현의 제약이 있어 보였고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. - 또한, 밴드 내에서 보컬을 담당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약했습니다.
황민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래곡의 경우 다양한 소재를 차용하여 곡의 신선함을 더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나, 판소리를 소재로 한 경우 기존의 소리와 사설을 그대로 차용하여 새로운 시도 혹은 해석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- 예년과 마찬가지로 드럼, 베이스 기타, 건반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현 시대 전통음악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되나 전통음악 연주자와 서양음악 연주자 간 서로 얼마나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되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곡들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.

□ 향후 일정

구분	기간 및 장소	비고
2차 예선 진출팀 대상 '오리엔테이션' 진행 - 2차 예선 순서 추첨 - 예술감독 소개 및 멘토링/연습실 사용 일정 등 협의 - 2차 예선 기술협약서 작성 등 기타 안내	5월 25일(월), 14:00~17:00 / 국악방송 공개홀 (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, DMS빌딩 12층)	- 팀 대표 또는 작곡가 중 1인 참가 필수
2차 예선 진출팀 대상 '예술감독/멘토 멘토링' 진행	5월 말~6월 중순 / 외부 연습실	- 멘토링 희망팀에 한해 진행
2차 예선 (실연심사 / 공개)	6월 27일(토) / 국악방송 공개홀 예정	- 10팀 선정 예정

□ 문의처

o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-300-9973 / jinsaem@igbf.kr